

BOK 이슈노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및 금융부문에서의 정책대응

이지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차장
Tel. 02-759-5425
jihoo_lee@bok.or.kr

정호성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차장
Tel. 02-759-5308
hschung@bok.or.kr

2014년 12월 8일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내수의존도가 높고 수출, 해외투자 등 해외진출에 있어서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서베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수시장의 부진, 국내 대기업들의 국내 중소기업 의존도 저하,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의 FTA체결 확대에 따른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심화, 글로벌 공급사슬(supply chain)에 편입되기 위한 기술우위 확보 필요성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금융에 대한 접근성 제약, 불리한 자금조달 여건 등으로 해외진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며,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조달시 애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아울러 엔화의 큰 폭 약세, 국제적 금융 규제 강화 등 수출여건 악화로 이들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정책당국은 다각도로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현황과 해외진출시 주된 애로사항을 최근 서베이 결과 등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에 대응한 한국은행과 정부의 중소기업 무역지원 금융대책을 소개한 다음, 한국은행의 정책지원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기업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지원체계의 개선을 위해 장·단기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한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고의 작성과 관련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최윤규 경제연구원장, 김현정 부원장, 김준한 부장, 강종구 실장, 안병권 실장, 황광명 차장, 오석은 과장, 김선영 연구원께 감사드립니다.



I. 조사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한 일부 대기업과 해외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 간 양극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

전통적으로 내수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중소기업들이 최근 들어 부진한 경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 현지투자 등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정책당국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어 왔으나,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본 자료에서는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별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한 일부 대기업은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해외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실적 악화를 호소하는 등 기업간 양극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Financial Times 2013). 이와 같은 중소기업 부진은 이들의 높은 고용창출 여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경제의 고용사정 개선을 저해하여 경제내 양극화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부진한 경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내수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중소기업들이 최근 들어 수출, 현지투자 등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예컨대,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기업의 61.7%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12.5%)하였거나 진출을 추진중(49.2%)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2).

그러나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자금여력도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나 한국은행 등은 기존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해 왔으나,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①먼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②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 ③이에 대한 한국은행 등의 금융지원을 소개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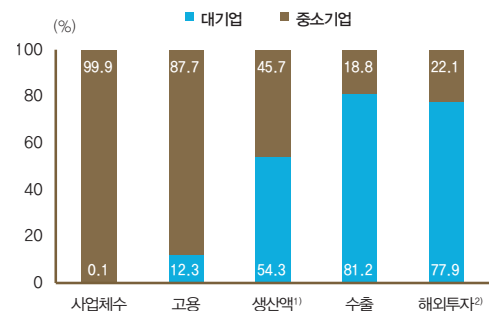
그 효과를 분석한 다음, ④마지막으로 현행 지원체계의 개선을 위해 장·단기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한다.

II.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및 최근 활성화 추진배경

1.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내수의존도가 높고 수출, 해외투자 등 해외진출(Internationalisation of SMEs)에 있어서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수출, 해외투자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용이나 생산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하회할 뿐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저조하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그림 2〉).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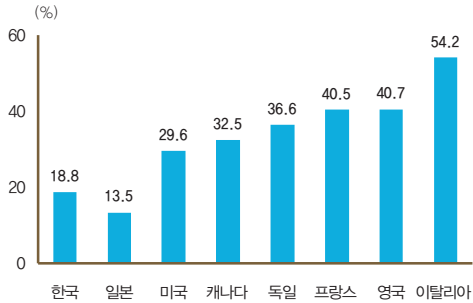
〈그림 1〉 우리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2012년 기준)



자료 : 중소기업청, 수출입은행
 주 : 1) 제조업 기준
 2) 잔액기준(2013년말), 개인 등의 투자를 중소기업 투자실적에 포함

1)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출비중은 18.8%(2012년중)로 일본(13.5%, 2010년중)보다는 높았으나, 중견기업을 포함할 경우 32.1%로 일본(56.9%)에 크게 못 미친다(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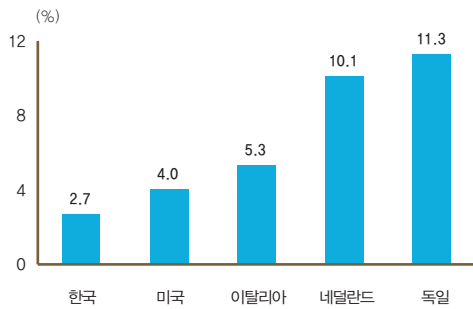
〈그림 2〉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국제비교, 2010년 기준)¹⁾



자료 : 중소기업청, OECD(2013), 다만 일본은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에서 재인용
주 : 1) 한국은 2012년 기준

먼저 수출중소기업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2.7%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80% 이상이 수출규모가 100만달러 이하로 영세하다(〈그림 3〉, 〈그림 4〉). 게다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높아진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되고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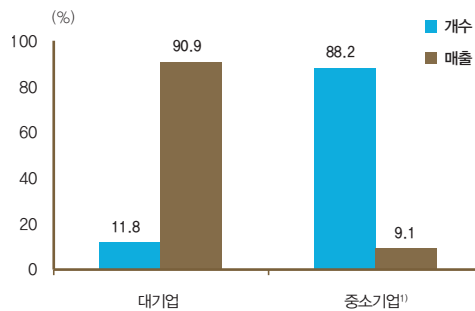
〈그림 3〉 수출중소기업수 비중
(국제비교, 2012년 기준)



자료 :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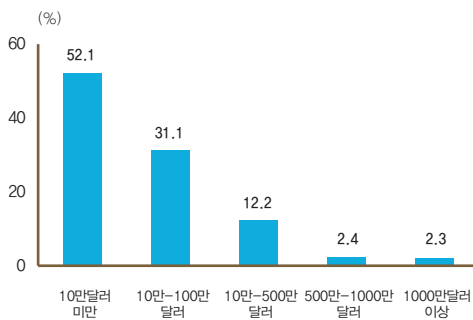
한편 해외투자 측면을 보면, 중소기업(개인 등 포함)이 현지법인수에서는 전체의 88.2%를 차지하였으나, 현지법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에 불과한 실정이다(〈그림 5〉).³⁾ 특히 신규해외투자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10%대 중반까지 축소되었다(〈그림 6〉).

〈그림 5〉 규모별 현지법인수 비중
(2011년말 현재)



자료 : 수출입은행(법인수 비중은 2012년말, 매출비중은 2011년중)
주 : 1) 개인 등 포함

〈그림 4〉 수출규모별 중소기업수 비중
(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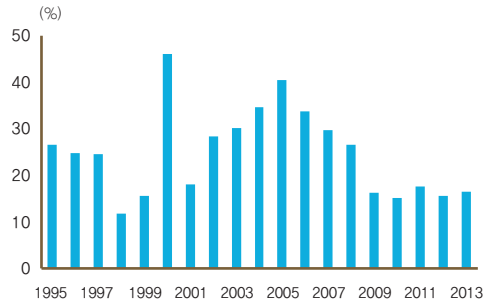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2) 매출액중 수출액 비중(제조업 기준)의 경우 대기업에서는 상승(2003년 50.1%→2010년 59.0%)하였으나, 중소기업에서는 하락(2003년 26.7%→2010년 22.6%)하였다(한국은행 2007, 2011). 또한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2000년 36.9%→2008년 30.9%)하였다. 2009년부터 기업규모별 수출통계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나뉘어 집계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2009년 21.1%에서 2012년 18.8%로 하락하였다(산업연구원 2014).

3)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투자한 국가수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1996년말) 84개국에 불과(전체 101개국)하였으나, 2013년말 현재는 174개국(전체 185개국)까지 확대되었다(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참조).

〈그림 6〉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비중 추이



자료 :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저조한 것은 그간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을 추진한 결과임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비중이 낮은 것은 그간 우리나라 경제가 대기업 수출 주도형 성장모델을 추진해왔던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13). 이러한 성장구조 하에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독자적 해외진출을 추진하기보다는 최종재를 생산·수출하는 대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기여해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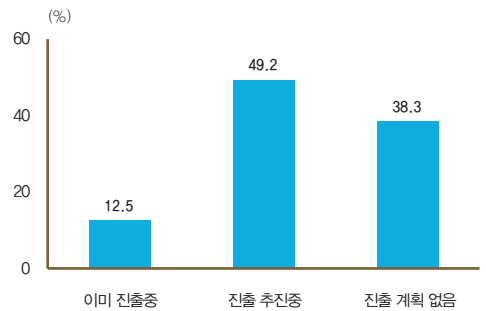
2. 중소기업들이 최근 해외진출에 적극적인 배경

최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계획을 조사한 결과(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2)에 따르면 이미 진출중인 기업은 12.5%에 불과하였으나, 신규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절반에 육박(49.2%)하며 진출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기업(38.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 7〉).

진출방식으로는 상품 및 용역 수출(71.1%)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기술·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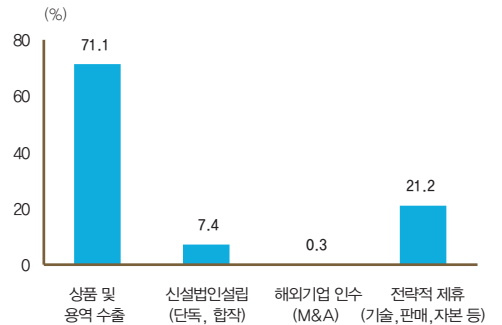
등에서의 전략적 제휴, 해외법인 설립 및 해외 기업 인수 등 해외투자 방식(29.9%)을 고려하는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8〉).

〈그림 7〉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추진현황



자료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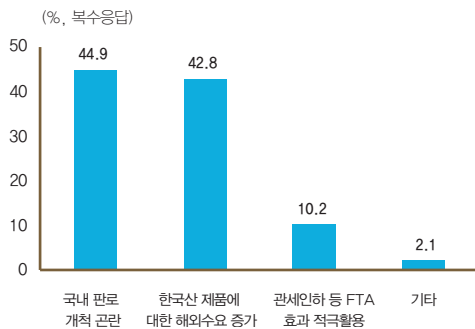
〈그림 8〉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추진방식



자료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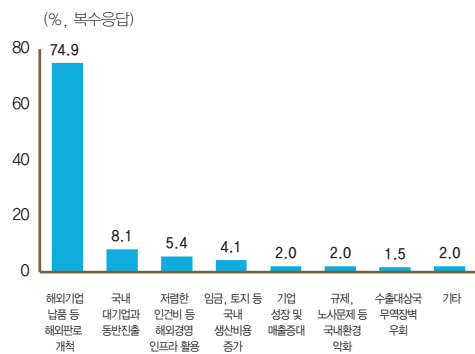
한편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주된 사유로는 수출, 해외투자 모두에서 판로개척을 제시하였다(〈그림 9〉, 〈그림 10〉).

〈그림 9〉 중소기업의 수출 추진 사유



자료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2012)

〈그림 10〉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추진 사유



자료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2012)

앞선 서베이 결과에 기초하여 최근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수시장의 부진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의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내수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에 간접적으로 진출하거나, 현지공장 신설 등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해외수요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⁴⁾

둘째, 국내 대기업들의 국내 중소기업 의존도가 저하된 것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와 맞물려 국내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지생산을 늘리고 중간재도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 조달⁵⁾함에 따라 기존의 중소기업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이 진출한 국가로의 현지진출을 추진하거나 수요처를 다변화하여 대기업 등에 대한 가격협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와 주요국간 FTA체결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도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배경중의 하나이다. 이는 미국, EU 등과의 FTA 체결에 따라 내수에만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 확대 등으로 국내시장에서의 입지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글로벌 기업이 중심이 된 공급사슬(supply chain)에 편입됨으로써 혁신기술이나 지식을 확보하여 기술개발 등에서 우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⁶⁾ 이는 최근 글로벌 인터넷 환경 개선

최근 들어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내수시장의 부진 지속, 국내 대기업들의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의존도 저하, FTA체결국 확대, 글로벌 기업이 중심이 된 공급사슬(supply chain)에 편입되기 위한 기술우위 확보 필요성 등에 주로 기인함

4) 스페인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가 침체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Lopez 2007).
 5) 이는 오늘날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 마케팅은 물론 연구개발 영역에서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조직을 끊임없이 재배치하고, 중간재마저 전세계에서 조달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한 국내 대기업들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6) 중소기업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첨단기술이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결과 인적·물적자본의 수준도 높여 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OECD 2007).

등으로 전자상거래(E-commerce)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사슬에 연계되는 것이 용이해진 데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비용을 절감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장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늘날과 같이 글로벌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중소기업도 생존을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해외투자가 중국 등 인접 저임금 국가의 개방과 더불어 크게 늘어난 것은 이를 반영하는 현상이다(해외투자 확대가 고용,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록 1> 참조). 또한 수출장벽이 높은 국가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또는 우회하여 침투함으로써 해외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도 해외투자는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추진사유는 다른 나라에서 조사한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영국 정부(UKBIS: UK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가 자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성장 기회 확보, 기존 시설 등의 활용도 제고, 국내 시장 의존도 축소, 회사 이미지 제고, 외국바이어의 문의 등을 해외진출 추진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UKBIS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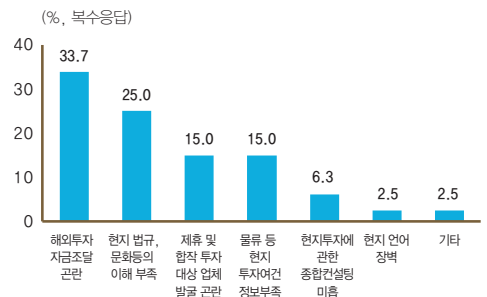
III. 중소기업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⁷⁾에도 불구하고 금융에 대한 접근성 제약, 불리한 자금조달 여건 등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 외에도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정보, 계약, 관리지식 등 다양한 부문에서 애로를 경험하고 있다(OECD 2009).

중소기업의 특징중 하나가 다양성이므로 기업별로 겪는 어려움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해외진출방식이 해외투자냐, 수출이냐에 따라 애로사항에 차이가 있다(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2).

먼저, 해외투자를 통한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중소기업들은 해외투자자금 조달 곤란, 현지법규·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제휴·합작투자 대상업체 발굴 곤란이나 물류 등 현지 투자여건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경우도 많았다(그림 11).

<그림 11> 해외투자 추진시 주된 애로사항



자료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2012)

7)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해외진출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해외진출에 보다 적극적이라는 점을 통제하더라도 경제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rris and Li 2007). 예컨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설비가동을 제고 등을 통해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내 경제내 자원이 동 기업으로 유입되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도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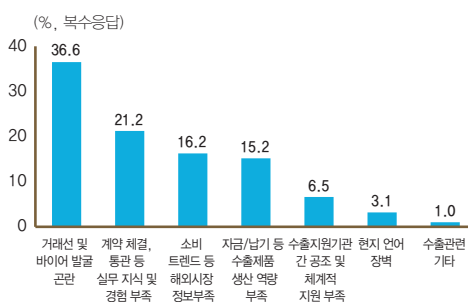
여기서 특히 해외투자를 추진중인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해외투자가 수출에 비해 거액의 자금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일단 투자가 진행되면 이를 되돌리는 것도 쉽지 않는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애로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총 28개국)이 부진한 데에도 일부 기인한다는 점에서,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정책과제라 하겠다.

참고로 해외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은 크게 본사를 통한 조달과 현지법인을 통한 조달로 나뉘는데 각각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먼저 본사를 통한 조달의 경우에는, 본사가 국내에서 원화·외화를 차입하여 자회사에 대여금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지법인이 모기업에게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주재국에서 원천세를 징수하는 등 현지에서 세금 문제가 부각될 수 있는 것이 단점이다. 현지법인을 통한 조달의 경우에는, 현지법인이 현지 금융기관(현지진출 국내 금융기관 포함)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주로 현지 금융기관은 본사 보증을 요구)으로 주재국에서 세금문제는 제기되지 않으나, 한국계 금융기관이 주재국에 없으면 실제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수출을 통한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중

소기업의 경우, 주된 애로사항으로 거래선 발굴 곤란, 해외시장 정보 부족 등 수출 추진 초 단계에서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실무경험 부족, 생산역량 부족, 언어장벽 등 수출 이행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그림 12〉).

〈그림 12〉 수출 추진시 주된 애로사항



자료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2012)

또한 최근 조사에서는 세계경제의 불안과 국내경기 둔화, 원화강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등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와 자금조달시 어려움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⁸⁾

IV.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 및 그 효과

이하에서는 최근 엔화의 큰 폭 약세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제적 금융규제 강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시 애로도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과 정부가 시행중인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대책을 살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접근성 제약이 심화되는 가운데, 엔화의 큰 폭 약세 등으로 수출여건도 악화되면서 해외진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8) 2013년 4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수출중소기업들은 ①판로개척의 어려움, ②세계경제의 불안 및 국내경기 둔화, ③가격경쟁력 약화, ④자금조달 곤란, ⑤환율변동성 확대에 따른 경영불안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2014년 3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조사에서도 ①해외구매선 확보, ②해외시장 정보부족, ③환율변동, ④동종업체와의 경쟁, ⑤해외인종 획득 등이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정책당국은 중소기업의 수출여건 악화 등 경영애로를 감안하여 다각도로 수출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있음

펴보고 그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금융대책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주된 논거는,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외부효과(externalities) 등 시장실패로 인해 수출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⁹⁾ 즉 기업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의 혜택을 과소평가하는 반면, 진출시 장애는 과대평가하기 쉬우며, 수출이 내수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감안하여 한국은행과 정부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¹⁰⁾ 먼저, 한국은행은 2013년 4월 총액한도대출제도의 무역금융지원한도를 대폭 확대(0.75조원 → 1.5조원)하면서, 이에 대한 대출금리도 연 1.25%에서 연 1.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도모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부터는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금융에서 포괄금융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연간 수출실적 5천만달러 미만 → 2억달러 미만)하기도 하였다.

2013년 12월 기존의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로 전면 개편한 것은 '창

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 제고와 고용창출능력 확충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새로운 형태의 대출을 도입하는 등 중앙은행 대출제도를 신용정책수단으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¹¹⁾

정부 역시 2013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중소기업 수출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역량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둘째는 수출 유망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셋째는 금융-비금융 연계 지원으로 정책의 시너지효과 창출, 넷째는 정책 금융기관의 이행 점검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같은 해 10월에는 중소기업 관련 부처간 정책조율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여 첫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¹²⁾

이처럼 정부에서 컨트롤타워 등을 통한 체계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2012년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의 개수가 189개에 이를 정도로 많고 복잡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전은경 2013). 다만 이는 기업별로 요구사항이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9) 중소기업의 수출 등 해외진출과 생산혁신 간에는 선순환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 및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7 · 2010).

10) 이와 관련하여 금융시스템 국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독일 정책당국의 사례에 대한 논의는 김희식(2014)을 참조.

11) 예를 들어, 영란은행의 'Funding for Lending Scheme', 일본은행의 '성장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자금공급제도' 및 '대출증가 지원을 위한 자금공급제도', 헝가리중앙은행의 'Funding for Growth Scheme'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12) 이를 통해 ①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②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강화 ③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효율화 ④중소기업 현장 애로 해소 등을 논의하였다.

예컨대, 창업초기부터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과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후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서로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투자와 관련하여서도 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사업 자금 대출, 무역보험공사의 해외 투자·사업금융 보험 등 다양한 지원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3).

2.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지원이 중소기업 수출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의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의 무역금융¹³⁾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舊 총액한도대출제도) 도입시부터 존재해왔으며 무역금융의 정착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1〉 무역금융대출 확대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¹⁾²⁾

독립변수	종속변수 수출 비중 (전체기업)	신용등급				
		(1~2)	(3~4)	(5~6)	(7~8)	(9~10)
무역금융대출 비중 _{t-1}	0.0275** (2.44)	-0.0397 (-0.78)	0.0374** (1.97)	0.0300* (1.68)	0.0506 (1.56)	-0.0210 (-0.86)
업력 _t	0.4939*** (4.86)	-0.2293 (-0.36)	0.7021*** (3.15)	0.6813*** (3.77)	0.8663*** (2.90)	0.3300 (1.46)
업력 _{t-1}	-0.0070*** (-3.16)	0.0058 (0.38)	-0.0129*** (-2.72)	-0.0119*** (-2.68)	-0.0173** (-2.56)	-0.0023 (-1.23)
로그 자산 _t	-0.3019 (-0.57)	-3.7554** (-2.03)	-2.2627* (-1.68)	1.2968 (1.43)	1.2594 (1.05)	-2.6140** (-2.36)
로그 종업원수 _t	0.8912* (1.74)	5.5183** (2.48)	1.7123 (1.27)	-0.2092 (-0.25)	-1.5210 (-1.26)	4.2552*** (4.18)
자본집약도 _t	-0.1825 (-0.59)	1.0975 (1.40)	0.3676 (0.32)	-0.8821** (-2.00)	-0.2806 (-0.44)	0.7353** (2.45)
자산수익률 _t	0.0204 (1.25)	-0.0007 (-0.01)	0.0630 (1.36)	-0.0031 (-0.19)	0.0187 (0.59)	0.0534 (1.31)
상수항 _t	2.9594 (0.63)	18.7126 (1.24)	9.3373 (0.85)	-8.8588 (-1.12)	-2.8683 (-0.30)	17.5003 (1.49)
연도 더미 포함여부	YES	YES	YES	YES	YES	YES
업종 더미 포함여부	YES	YES	YES	YES	YES	YES
R-squared	0.0173	0.0683	0.0349	0.0210	0.0368	0.0753
Hausman Test p-value	0.7875	0.7841	0.0362	0.9584	0.7026	0.3162
관측치	8,608	359	2,535	3,449	1,444	821
기업수	3,830	183	1,147	1,495	632	373

주 : 1)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2) () 내 수치는 t값이며, *, **, ***는 각각 10%, 5% 및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13) 무역금융이란 은행이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원화대출상품을 말한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취급실적(평잔기준)은 2014년 11월 현재 약 8.9조원이며, 모든 은행이 한국은행 지원으로 인한 조달금리 경감분을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취급실적(평잔기준)은 2014년 11월 현재 약 8.9조원으로 한국은행의 지원비율은 17% 수준이다.¹⁴⁾ 또한 대출금리 운용 현황을 보면, 모든 은행이 한국은행 지원으로 인한 조달금리 경감분을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감면하고 있으며, 2013년 4월 한도증액 이후 대출금리 감면폭이 확대되었다. 2014년 4월 현재 은행들의 조달금리 경감분은 0.30%p로 추정되며, 기업들이 적용받는 대출금리의 실제 감면폭은 한국은행의 은행 서베이 결과 0.25~0.64%p로 조사되었다.

(패널자료를 이용한 효과분석 결과)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지원이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별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기업의 총 대출액 중 무역금융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동 기업의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의하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지원이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별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기업의 총 대출액 중 무역금융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동 기업의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의하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이터와 구체적인 분석방법론에 대해서는 <부록 2> 참고).

특히 이러한 효과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시 한계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상위 신용등급(3~6등급) 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이미 양호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최상위 신용등급(1~2등급) 기업이나 은행의 대출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하

위 신용등급(7~10등급) 기업의 경우에는 무역금융이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V. 정책적 시사점

국가간 FTA 체결이 늘어나고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대기업과 달리 그간 해외진출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국제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확보하여야만 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행과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왔는 바,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 이러한 지원정책이 일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¹⁵⁾

그러나 이러한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데에는 여전히 국내외로 여러 장벽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현행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시행중인 여러 지원제도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한 다음, 정책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문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14) 한국은행의 지원비율은 2010년 7월 무역금융지원 한도 축소(1.5조원→0.75조원) 이후 하락하였으나, 2013년 4월 제도 개편에 따른 한도 증액(0.75조원→1.5조원)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은행대출금액 대비 한국은행의 지원비율 추이

						(% , %p)	
09.12월	10.6월(A)	10.12월	12.12월	13.12월	14.11월(B)	B-A	
15.5	15.2	7.2	8.6	18.0	16.9	+1.7	

15) 다만 본고의 정책효과 분석 결과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의 지원효과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일부 중소기업들이 과다하게 중복 혜택을 받아 자금지원이 꼭 필요한 부문에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 컨트롤타워를 구성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하겠다.

또한 한국은행도 최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우리나라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는 데 주요한 요소라는 인식 하에 기존의 중앙은행 대출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지원을 강화하였다.¹⁶⁾ 다만, 동 제도 시행과정에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다양한 글로벌 금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금융기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중소기업의 지속적 혁신과 대외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규모 국내 금융기관의 역할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책당국은 현행 지원체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국내 금융기관들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함

특히 국내 기업의 다양한 글로벌 금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금융기관과,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중소기업 규모 금융기관의 역할이 모두 중요함

16)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은 2014년 9월부터 예비투자지원 프로그램(한도 3조원)을 신설하여, 시중 유동성이 예비투자자재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부록 1〉

해외투자 증가가 국내경제(고용,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자국 경제의 산업구조조정 유도, 나아가 선진 제도·금융의 자국 경제로의 확산 등을 통해 고용, 투자 등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예컨대, 미국(Desai et al. 2009; Hufbauer et al. 2013), 독일(Wagner 2011), 일본(Yamashita and Fukao 2010; Tanaka 2012), 이탈리아·프랑스(Navaretti et al. 2010) 등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외투자는 국내 고용,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저임금국가 소재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로 국내 기업들이 저임금국가에서의 생산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국 고용과 투자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국내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감소를 야기할 가능성도 인정되나, 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 ① (자본유출입) 해외투자 초기에는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나 유출된 자본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자본(이윤,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으로 변형되어 유입되기도 한다.
- ② (수출) 자원확보, 시장확보 등을 위한 해외투자 증가는 자국시장으로부터의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을 늘릴 수 있다.
- ③ (고용) 해외투자로 저임금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지만 고임금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¹⁷⁾
- ④ (국내투자) 해외투자의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국내투자를 구축(crowding-out)하기도 하나 장기적으로는 보완적이다.¹⁸⁾

17) 예컨대,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시장접근형 투자는 국내 고용을 늘리지만 생산비용절감형 투자는 국내 고용을 줄인다(신현열·오진석 2005; Harrison and McMillan 2011).

18) 우리나라 제조업종 패널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는 주로 노동집약적 업종에서 해외투자가 이루어진 점을 반영하여 해외투자와 국내투자 간의 대체관계가 나타났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국내생산과 수직적 연관성이 높은 전기·전자 등 고기술업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양자 간에 보완관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김현정 2007).

〈부록 2〉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지원이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및 분석 방법)

분석대상 기업¹⁹⁾은 2011년말 기준 전체 3,339개(대출잔액 17.63조원)이며, 이들의 금융중개지원대출(당시 총액한도대출) 대상 대출잔액은 4.50조원(무역금융 지원 대상 대출잔액: 3.36조원)이었다. 분석기간은 자료이용이 가능한 4개년(2008~2011년말)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중소기업 현황

(개, 조원)

	업체수	수출액	매출액	총대출 잔액	금융중개지원대출 대상 대출잔액	무역금융 지원 대상 대출잔액
2008년말	2,692	3.51	34.13	12.63	3.47	2.67
2009년말	2,871	3.37	34.63	13.55	3.44	2.60
2010년말	3,111	3.80	43.35	15.78	3.99	2.95
2011년말	3,339	3.65	48.69	17.63	4.50	3.36

자료 : 한국은행, 한국기업데이터(KED)

개별 기업의 무역금융대출 비중(무역금융대출액/총대출액)이 수출 비중(수출액/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식 (1)과 같이 기업 패널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때 전년도 무역금융대출 비중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수출이 무역금융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Export_{k,t} = const + \alpha_k + \delta TF_{k,t-1} + \theta Z_{k,t} + \delta_k + \nu_t + \epsilon_{k,t} \quad (1)$$

* k : 기업, t : 연도, $Export$: 수출 비중, α_k : 기업별 고유효과, TF : 무역금융대출 비중, Z : 기업 재무변수(자산, 업력, 종업원수, 자본집약도<유형자산/종업원수>, 자산수익률), δ : 업종더미, ν : 연도더미

19)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무역금융 지원 대상 대출을 받은 기업 중 분석에 필요한 재무정보(예: 자산, 신용등급 등)가 없는 기업은 제외하였다.

〈참고문헌〉

- 김현정, (2007), “해외직접투자와 국내투자의 관계 분석,” 우리나라 FDI의 현황과 과제, 「금융경제논총」2007-1,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pp. 290-329.
- 김희식, (2014),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BOK 이슈노트」, 발간 준비 중.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3),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 2014」.
- 산업연구원, (2014),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최종보고서, 2014. 2.28.
- 신현열 · 오진석, (2005), “제조업의 국외직접투자(Outflow FDI)가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 「조사통계월보」 11월호, 한국은행.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2),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계획과 애로실태: 527개 중소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경영자문 현장조사 12-1.
- 진은경, (2013),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슈와 논점, 제663호, 국회입법조사처.
- 중소기업청, (2013),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3. 5.19.
- 한국은행, (2007), 「2006년 기업경영분석」.
- _____, (2011), 「2010년 기업경영분석」.
-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정책 효율화방안 최종 보고서”, 2012.7.
- Desai, M.A., F. Foley, and J. Hines, (2009), “Domestic Effects of the Foreign Activities of U.S. Multinational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Vol. 1(1), pp. 181-203.
- Financial Times, (2013), “Small Businesses Battle to Make Mark alongside South Korean Conglomerates,” November 5.

Harris, R., and Q.C. Li, (2007), “Firm Level Empirical Study of the Contribution of Exporting to UK Productivity Growth,” Report submitted to UKTI (March).

European Commission, (2007), *Final Report of the Expert Group on Supporting the Internationalisation of SMEs*, DG Enterprise and Industry, Brussels.

_____, (2010), *Internationalisation of European SMEs*, DG Enterprise and Industry, Brussels.

Harrison, A., and M. McMillan, (2011), “Offshoring Jobs? Multinationals and U.S. Manufacturing Employmen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93(3), pp. 857–875.

Hufbauer, G.C., T.H. Moran, and L. Oldenski, (2013),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US Exports, Jobs, and R&D: Implications for US Policy*, Policy Analyses in International Economics 101,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Lopez, N.V., (2007), “Export Barriers and Strategic Grouping,” *Journal of Global Marketing*, Vol. 20(2–3), pp. 17–29.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3), *Beyond Korean Style: Shaping A New Growth Formula*, April.

Navaretti, B., D. Castellani, and A. Disdier, (2010), “How Does Investing in Cheap Labour Countries Affect Performance at Home? Firm-level evidence from France and Italy,” *Oxford Economic Papers*, Vol. 62(2), pp. 234–260.

OECD, (2007), “Enhancing the Role of SMEs in Global Value Chains,” OECD Background Report, OECD Global Conference, Tokyo, May 31 – June 1.

_____, (2009), “Top Barriers and Drivers to SME Internationalisation,” Report by the OECD Working Party on SMEs and Entrepreneurship.

_____, (2013),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3,” December.

Tanaka, A., (2012), “The Effects of FDI on Domestic Employment and Workforce Composition,”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No. 12-E-069.

UKBIS, (2011),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 The Economic Rationale for Government Support,” *BIS Economic Paper* 13,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of the United Kingdom.

Wagner, J., (2011), “Offshoring and Firm Performance: Self-selection, Effects on Performance, or Both?”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 147, pp. 217-247.

Yamashita, N., and K. Fukao, (2010), “Expansion Abroad and Jobs at Home: Evidence from Japanese Multinational Enterprises,” *Japan and the World Economy*, Vol. 22, pp. 88-97.

Copyright © THE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BOK 이슈노트 No.○○○○-○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뉴미디어팀(02-759-539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